



이응윤, 최은숙(주은, 주영) 선교사 이야기(2025년 3월 28일)

샬롬! 주님사랑하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지난 2개월 동안 있었던 사역들을 보고하고 기도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수비전센터 건축 상황

생명수비전센터(은혜와 평강교회)는 작년 12월 8일 기공예배를 드린 후에 지난 3개월 반 동안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층 바닥은 이미 마무리했고 2층 바닥을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2층 건물위에 옥상과 지붕을 올릴 계획이라 골조공사 3단계중 2단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더운 때인 3,4월이라 작업환경은 좋지 않지만 5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우기 전에 골조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붕공사를 마친 후에는 건물의 벽과 창틀을 세우고 미장하는 외장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금된 건축비는 골조공사를 마치고 나면 없습니다. 예배와 집회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를 이중벽돌로 쌓다 보니까 기초와 기둥이 커지게 되었고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외장공사부터는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소식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후에 가끔 아픈 분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하거나(아래 좌), 대학졸업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고, 매달 첫째주일에는 생일을 맞은 성도들을 축하하며 케익을 자르기도 합니다. 어집사님과 떡선생님은 매주 금요일 퇴근한 후에 교회(센터)건물이 들어설 타루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벌써 여러 명의 인근 주민들이 건물이 세워지면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야이(미얀마 이주민) 어린이 사역은 3-4월 태국학교 방학을 맞아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태국의 중산층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예배와 수준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어와나(AWANA)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영어 및 태국어로 다음세대를 세워가려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센터가 완공되면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및 통역 사역

올 해도 교회개척자 훈련원(훈련원장: 김농원 선교사)에서 9기 훈련생들에게 신약개론을 강의했습니다(아래 좌측). 저들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되기를 소망합니다. 태국교회는 2023년 기준으로 8,500 여개가 되는데 대부분 성도수가 50여명 이하인 작은 교회들입니다. 반면에 7-Eleven 편의점 수는 15,000 여개가 됩니다. 태국교회는 교회개척 배가운동을 해야 하고 성도수도 크게 늘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들을 통해 태국 전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태국교회에 한국과 중국의 이단들이 들어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가 수많은 재정을 쏟아부으며 태국교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에 구원파 문제로 시끄러운 난(Nan) 지역에 가서 이단세미나 통역을 했습니다(가운데).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며 강의 통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웨슬리 펠로십에 소속된 감리교 라후족 사역자부부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우측).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사역자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사역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전하며(엡4:11-12)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자고 격려했습니다.

방문과 중보에 대한 감사

지난 2개월 동안에도 건축현장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대화 가운데 이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가 완성된 후에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까 기대가 큼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수비전센터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그 뜻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비전센터를 통해 태국 땅과 인도차이나 및 아시아 전지역에 부흥의 물결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과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딸 주은이는 인도네시아 비자를 받아서 바탐섬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에는 온라인으로 SBC 신학교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유아부사역을 위해서 싱가포르 나와야 합니다. 매주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주님께서 안전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그리고 올 해는 싱가포르 학생비자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지난 번에 저의 어깨 통증을 위해서 기도부탁을 드렸는데 잘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아내 최은숙선교사는 안구건조증 치료와 정기적으로 먹는 약처방을 받기위해 4월 14일-5월 9일까지 한국에 방문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혹시 사역과 교제를 위해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도 됩니다(연락처: 010-9931-6418).

기도 제목

1. 생명수비전센터(은혜와 평강교회) 건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직 예산이 없는 외장공사 비용과 또 내부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2. 은혜와 평강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사역과 대외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3. 장래 부흥과 사역의 확대를 준비하면서 함께 비전을 보고 동역할 선교사(영어예배, AWANA 및 음악사역) 및 현지인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4. 딸 주은이가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싱가포르 학생비자를 받아서 다음 학기부터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락처

※ 이메일: johnlee64@gmail.com / yingyin@hanmail.net

※ 전화: 태국: (66) 082-508-6003 / 카톡 아이디: johnlee64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920-982392-879 (예금주: GMS 이응윤/최은숙)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국민은행: 076-21-0683-934 (예금주: 이응윤)